



‘탈꼴찌, 우리 손에 달렸다.’ kt 내야수 황재균(왼쪽 사진 오른쪽)과 투수 더스턴 니퍼트(오른쪽 사진)는 미국 애리조나 스프링캠프에서 강 훈련을 소화했다. 각각 올 시즌을 앞두고 새롭게 영입된 타격과 마운드의 핵심 전력으로 팀의 숙원인 탈꼴찌를 위해 의기투합했다.



사진제공 | kt 위즈



조범현(왼쪽) 전 감독이 고등학교 선수의 자세를 일일이 잡아주며 직접 지도에 나서고 있다. 조 전 감독은 지방 곳곳을 돌며 양질의 포수 양성을 위한 재능기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뒤쪽에서 전문적인 포수 송구 동작 훈련방법을 촬영하고 있는 고교 코치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스포츠동아DB

“가르치는 맛이 나네” 조범현의 재능 기부

포수 출신 특화 지도…후배 성장 보람

“후배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 이게 바로 지도하는 맛이죠.”

조범현(58) 전 감독은 요즘 특별한 여행길에 올라있다. 지방 곳곳 중·고등학교를 돌며 유망주들을 지도하며 ‘재능 기부’를 하는 중이다. 포수 양성에 일가견이 있는 그의 발걸음은 어린 선수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일이다. 특히 지도 환경이 열악한 포수라는 포지션의 특성상 조 전 감독의 방문은 프로 선수를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한줄기 빛과도 같다.

●“포수는 하체가 전부란다.”

2주전 부산에서 열린 고교 인터리그를 둘러본 것을 시작으로 조 전 감독은 현재 순천에 집을 풀었다. 생방울에서 코치 생활을 함께한 효천고 서창기 감독과의 인연으로 이곳에서 효천고를 비롯한 인근 중·고교 선수들을 두루 지도하고 있다.

그의 가르침은 늘 기본에서 출발한다. 중·고교는 물론 대학교까지 아마추어 전반에 걸쳐 포수 출신 전문 지도자를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까닭에 기초적인 풋워크 단계부터 블로킹과 스로잉 등 어린 선수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때만저우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는 부분은 하체 훈련이다. 조 전 감독은 “포수는 정지된 상태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하체 중심을 잡는 훈련이 중요하다. 밑바탕을 탄탄하게 다져야 고도의 기술도 얻을 수 있는 법이다. 포수에게 하체는 전부나 다름이 없으니 절대 훈련을 게을리 해선 안 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감독은 지난해에도 경기도 이천 인근 학교들을 찾아 후배 양성에 힘을 쏟곤 했는데,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어린 선수들을 여러 지도하면서 되려 배워가는 것이 많다. 그는 “내가 가진 것이 100% 맞는 것은 아니다. 코치들과 상의하면서 아이들의 성향, 신체적 조건, 집안 환경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며 합리적인 훈련법을 찾는다. 내게도 많은 공부라 된다”며 웃었다.

●“내가 떠나도 너희는 멈추지 말거라.”

후배들의 면면을 돌봐주는 부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코칭스태프에게 지도법에 관한 노하우를 전달하는 일이다. 시간의 제약으로 한 학교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여건상, 본인이 떠난 뒤에도 학생들이 올바른 지도 아래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조 전 감독은 “연속성을 만들기 위해선 지도자들이 훈련법에 대해 알아야 한다. 코치들에게 어떤 훈련을 통해 풋워크, 유연성, 파워 등을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근래에 들어서 인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그는 “야구를 통해 몸도 정신도 건강하게 키워야 한다. 요즘엔 어린 나이에 도 사건, 사고가 많다. 사회에 진출 하더라도 야구를 했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올바른 사회인이 될 수 있다는 의식이 필요하단다”고 덧붙였다.

조 전 감독에게 후배들은 곧 기쁨이다. 그들을 위해 내어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소중하다. “후배들이 잘 배워서 좋은 선수로 성장하는 것은 야구인으로서 참 보람된 일이다. 그저 내가 선배들에게 받은 것들을 후배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kt 탈꼴찌 프로젝트…니퍼트·황재균 어깨 무겁다

검증된 이적생들 ‘탈꼴찌 마법’ 부릴까

니퍼트 “모든 게 좋다” 기량 저하 우려 불식
황재균 “타이밍 맞아간다” 몸값 증명 기대

kt는 KBO리그 10개 구단 중 팀 역사가 가장 짧은 ‘막내’ 구단이다. 전력을 구성하고 있는 선수 대부분도 여러 아지는 여러모로 ‘신생’ 구단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팀이다.

그러나 ‘신생’이라는 말은 kt가 올해부터 가장 지양하는 표현 중 하나다. 마법사 군단은 KBO리그 합류 이래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쉽게 말해 ‘꼴찌’ 전문팀이었다. 네 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그들에게 더 이상의 핑계거리는 없다. 페어리 없는 외침이었던 ‘탈꼴찌’는 이제 그들이 반드시 해내야 하는 숙원사업이었다.

kt는 목적 달성을 위해 누구보다 바쁜 비시즌

을 보냈다. 코칭스태프를 대폭 개편하고, 검증된 선수들도 대거 영입했다. 현장 일선에서는 “선수 한 명을 영입한다 해서 팀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선수 개개인이 제 몫을 해야 팀이라는 커다란 토피나뭇잎도 도는 법이다. kt에는 이 역할을 수행할 토피나뭇잎이 무려 두 개나 추가됐다.

●“나는 여전히 나다” 베테랑 외인투수 니퍼트 더스턴 니퍼트(37)는 7년간 입었던 두산 유니폼을 벗고 kt맨으로 새롭게 합류했다. ‘하락세가 시작됐다’는 주변의 신선을 불식시키기 위해 kt는 적절한 기회의 팀이었다.

최근 kt의 스프링캠프가 열리고 있는 미국 L.A에서 만난 그는 유독 굵은 팔방울을 쏠고 있었다. 이전보다 불안한 비시즌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그에게 성급함이란 없었다. 이제까지의 자신을 믿고, 늘 해오던 대로 비시즌을 준비하고 있었다.

니퍼트는 “아직 내 몸이 100%는 아니다. 이른 개막에 다른 이들이 나보다 앞서가고 있지만, 나는 일반적인 내 스케줄을 큰 이상 없이 소화하는 중이다. 곧 100%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기량 저하와 관련해서는 강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부상만 없다면 공을 던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은 모든 게 다 좋다. 유니폼이 바뀌었지만, 나는 여전히 나다”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나만 잘 하면 된다” 88억원의 사나이 황재균 황재균(31)은 총액 88억원이라는 프리에이전트(FA) ‘대박’을 통해 마법사 군단에 합류했다. 언제나 그렇듯 대형 계약에는 따가운 눈총이 따르는 법이다. 그 역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성직으로 말하겠다”는 간단명료한 마음가짐으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었다.

황재균은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란초쿠카

몽가에서 열린 NC와의 연습경기에서 첫 안타를 때렸다. 새롭게 시도하는 중심이동에 조금씩 적응하는 모습이었다. 황재균은 “타격폼을 크게 바꾸지는 않았다. 다만 하체를 쓰는 법에서 조금 변화를 줬다. 앞다리에 체중을 더 두는 방법인데, 조금씩 타이밍이 맞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팀 성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간단명료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나만 잘 하면 된다. (연습경기 패배는) 지금 내가 잘 못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확실한 의사표현을 했다.

니퍼트와 황재균은 KBO리그에서 이미 검증받은 ‘느낌표’ 자원들이었다. 그러나 저마다의 이유로 2018시즌을 앞두고 졸지에 ‘물음표’ 자원이 된 이들이다. 둘은 올 시즌 기량 검증을 통해 다시 한번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꿀 수 있을까. kt의 ‘탈꼴찌’ 과업은 둘의 ‘느낌표 만들기’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은상 기자 award@donga.com

선수폭이 넓어졌다…한화 안방 생탈전

최재훈 중심 정범모·염태용·지성준 경쟁
한용덕 감독 “시범경기까지 풀로 돌릴 것”

한화는 최근 5년간(2013~2017시즌) 확실한 주전 포수 없이 시즌을 치렀다. 신경현 전 배터리코치가 2012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뒤 이글스 안방마님 자리는 늘 무한경쟁제였다. 조인성(두산 베리리코치)과 차일목(한화 육성군 코치), 최재훈(29)을 영입한 것도 포수진 안정화를 위한 조치였다. 2017시즌까지 내·외야수 출신을 제외하고 무려 12명의 포수가 마스크를 썼던 터라 확실히 중심을 잡아줄 안방마님이 필요한 현실이다.

한화 한용덕(52) 감독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2017년 11월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캠프 때부터 포수들의 경쟁을 유도한 것도 그 연장선상

에 있다. 마무리캠프에 참가했던 최재훈과 정범모(31), 염태용, 지성준(이상 24) 등 4명이 오키나와 스프링캠프까지 함께한 것은 경쟁력을 인정받아서다. 한 감독은 “정규시즌을 시작하면 1군에 두 명의 포수를 둘 것이다”며 “최재훈이 중심을 잡고 정범모와 염태용, 지성준이 경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훈은 2017시즌 102경기(706이닝)에서 마스크를 쓴 한화의 주전포수다. 시즌 중반 신성현(두산)과 마트레이드로 이적하자마자 밤을 새가며 한화 투수들을 연구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도 인정받았다. 이번 캠프에서도 꾸준히 마스크를 쓰며 포수진의 중심을 잡고 있다. 어깨가 강하고 공격력이 뛰어난 정범모와 블로킹에 일가견이 있는 염태용, 미드에서 공을 빼는 속도가 빠른 지성준 등도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최재훈

정범모

염태용

지성준

한화의 안방 경쟁이 치열해진 것은 뎀스(Depth)의 확장도 과를 같이한다. 한화 구단의 비전 가운데 하나가 주전급 뎀스 강화다. 포수는 그라운드에서 8명의 야수를 마주보는 유일한 존재다. 이는 야구에서 포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설명한다. 단순히 공을 받고, 주자를 잡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 전체를 한눈에 바라보며 사인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홈이 아닌 2~3루를 향하는 중계플레이를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끝을

하는 것도 한화의 포수 훈련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무주공산에 가까웠던 과거와 달리 한 명이 중심을 잡고, 이를 뒷받침할 적임자를 찾기 위해 경쟁하는 것 자체만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 감독은 “시범경기까지는 (포수들) 최대 인원으로 운영할 것이다. 뎀스는 확실히 넓어졌다”고 흡족해했다.

오키나와(일본)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레그킥 장착한 추신수 스프링캠프 ‘4할 타자’

오클랜드와 시범경기 3안타 2타점

추신수(36·텍사스)가 궤조의 타격 감각을 이어가고 있다. 새롭게 장착한 레그킥과 함께다. 추신수는 7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페

사의 호호캄 스타디움에서 열린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2018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 3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해 3타수 3안타 2타점의 맹타를 휘둘렀다. 스프링캠프 타율은 0.462(13타수 6안타)로 연일 상승세다.

시작부터 안타를 뽑아내며 가볍게 몸을 풀었다. 1회초 2사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들어선 첫 타석에서 상대 선발 선 마네아의 초구를 받아쳐 좌전 안타를 기록했다. 직전 주자인 트레버 플루

프의 솔로 홈런으로 1-0으로 앞선 채 맞이한 3회에서도 다시 한 번 초구를 공략했다. 두 번째 투수인 에릭 조키쉬를 상대로 2루수 쪽 내야 안타를 만들었다. 다만 후속타 불발로 홈을 밟지 못했다.

기세를 몰아 5회에 맞이한 세 번째 타석에선 시원한 장타를 뽑아냈다. 볼넷, 안타로 만들어진 무사 2·3루 득점 찬스에서 중월 2루타를 터트리며 2타점을 기록했다. 이를 발판삼아 팀은

3-2로 역전에 성공했다. 추신수는 8회 공격 상황에서 후안 센테노와 교체돼 경기를 마쳤고, 텍사스는 8회말에만 3점을 허용하며 3-5로 고개를 숙였다.

올 시즌을 앞두고 레그킥으로 타격 폼을 변경한 추신수는 3월 들어 치른 세 차례의 시범경기 내내 안타를 생산하며 총 6개의 안타를 뽑았다. 동시에 5타점을 쓸어 모으는 등 영양가도 높았다.

서다영 기자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